

## 崔溥의 『漂海錄』에 나타난 문학적 서술방식 연구

황 아 영\*

### < 目 次 >

I. 머리말	2. 상세한 현실묘사를 통한
II. 최부 『표해록』의 문체 분류와 특징	상황 강조
III. 최부 『표해록』의 문학적 서술방식	3. 긴장과 해소의 반복을 통한
1. 대화체를 통한 사실감과 현장감	스토리 전개
증가	IV. 맺음말

### <국문 초록>

錦南 崔溥(1454~1504)의 『漂海錄』은 최부가 바다를 표류하다가 중국에 도착하고 중국 내륙을 통하여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경험을 成宗의 명을 받아 기록한 기행문이다. 최부는 『표해록』에 150일 간의 경험담을 일기 형식으로 빠짐없이 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조선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경 이남 지역의 풍속과 지리, 자연환경 등이 상세하게 전해지게 되었다. 『표해록』은 건문의 내용과 일기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잡기류이기도 하고 수필과 잡록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필기류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최부가 살았던 조선 성종조는 실용적 성격의 학문을 진흥시켰고, 많은 필기류 저서들이 성행하였던 시기이다. 최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 ahyoungh20@naver.com

부도 이러한 실용서적 편찬에 참여하였고 해박한 지식과 전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왕명을 받아 『표해록』을 저술하면서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대한 기록과 함께 정보의 전달을 위한 기록을 함께 아우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해록』에 나타난 정보전달보다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문학적 표현에 대해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최부는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그대로 기록하며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였고, 주변 상황과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생동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생사가 오고가는 긴박한 상황들,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들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스토리를 긴장감 넘치게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으로 인해 『표해록』은 정보전달이라는 목적 달성은 물론이고 문학적으로도 높은 성취를 이루어 이후의 조선 문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제어】 최부, 『표해록』, 잡기체, 필기체, 전문일기, 서술방식

## I. 머리말

錦南 崔溥(1454~1504)의 『漂海錄』은 최부가 겪은 표류의 체험과 중국내륙을 견문한 내용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기행문이다. 최부는 성종 18년(1487) 9월에 '濟州等三邑推刷敝差官'<sup>1)</sup>에 임명되어 11월 12일에 제주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성종 19년(1488) 정월 30일에 나주의 본가로부터 부친상의 부고를 듣게 된다. 최부는 상을 치르기 위해 배를 띄워 나주로 가는 길에 표류를 당하여 중국에 표착하게 되고, 중국 내륙을 거쳐 6월 4일 압록강을 건넌으로써 150일 만에 조선에 돌아오게 된다. 귀국한 뒤 6월 14일에 성종의 명을 받아<sup>2)</sup> 8일 만인 6월 22일 표류와 견문의

1) 제주 3읍은 濟州, 旌義, 大靜이고, 推刷은 범법자를 색출해서 데려오는 직책을 뜻한다.(장덕순, 『韓國隨筆文學史』, 1985, 새문사, p.132)

2) 최부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청파역에 묵고 있을 때 성종은 일기를 지어 올리도록 명하였다. (『成宗實錄』卷217, 「成宗 19年(1488) 6月 14日 丙午」, 2번째 기사, [○前校理崔溥還自京師, 寓靑坡驛, 命撰進日記. 傳曰: “李暹漂流生還, 特命超資. 溥可用人, 今又

기록을 담은 『표해록』 3권을 지어 올렸다.<sup>3)</sup>

최부의 『표해록』이 지어질 당시는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海禁정책으로 인하여 바닷길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다. 조선과 명나라의 사절단은 육로를 통하여 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레 조선에서는 북경 이남 지역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많지 않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최부가 의도치 않게 바다를 표류하였고, 더불어 중국 남부 내륙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었다.<sup>4)</sup> 그리하여 최부의 『표해록』은 조선 전기에 중국 북경이남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저술로 인정받게 되었다.<sup>5)</sup>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표해록』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부가 성종에게 올릴 당시는 제목이 『中朝見聞日記』였는데, 이것을 최부의 외손 柳希春이 선조 2년(1569)에 다시 간행하면서 제목을

漂泊萬里, 無恙生還, 其絀用之命, 當在喪畢之後, 姑賜米豆若干及贖物.)]

- 3) 『成宗實錄』卷217, 「成宗 19年(1488) 6月 22日 甲寅」, 2번째 기사, [○前校理崔溥撰進 『中朝見聞日記』, 承政院僉啓曰: “崔溥今畢撰日記, 欲奔父喪, 請給馬以送.” 傳曰: “可. 且予見日記, 可謂妻恤. 其賜縹布五十匹.”]
- 4) 최부 외에 조선 전기 표류에 관한 기록으로는 최부가 표류하기 7년전(1481)에 旌義縣監 李暹이 표류하여 중국에 도착하였다가 조선으로 이송되어 돌아온 기록이 있다. (『歷代要覽』「成化」 17년, ○ 정외의 현감 이섬이 표류하여 直隸省 楊州府에 이르렀는데, 禮部에서 上奏하여 허락을 받고 배신 朴楗에 맡겨 보내왔다. [○旌義縣監李暹, 漂流泊于直隸楊州府, 禮部奏准, 順付陪臣朴楗以來.] 성종은 이섬에게도 표류했던 상황을 기록하게 하였음이 『성종실록』에 보인다. (『成宗實錄』卷157, 「成宗 14年(1483) 8月 22日 壬午」, 5, 6번째 기사, [○千秋使朴楗回自京師, 李暹從之, 來, 復命. 上引見, 問李暹漂流事, 暹啓曰: “臣遞旌義縣監, 去二月二十九日, 離本館泛海, 未及楸子島十里許, 遇東北風, 雲霧四塞, 雨脚如注, 怒濤如山, 不辨東西, 因漂流十日, 偶泊中國長沙鎮, 得保殘命, 專是上德所及也.” 因歷絀漂流之狀. 上曰: “爾若不解文, 豈能生還?” 仍命後政更啓, 蓋欲賞職也. ○命弘文館直提學金宗直因李暹行錄, 又採其言.]) 최부의 『漂海錄』卷2, 1488년 2월 23일의 일기에도 이섬의 표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5) 『中宗實錄』卷13, 「中宗 6年(1511) 3月 14日 甲子」, 3번째 기사, [(생략) 世仁曰: “世宗朝, 朴堧應時以生, 傳習禮樂於中朝, 播於東方. 堧之所撰樂詞, 亦甚美, 而其子孫孱劣, 不能播之於世. 請開刊, 藏之於禮曹, 掌樂院, 以時教訓. 然則東方樂詞, 可一復古之盛音矣. 且崔溥 『漂海錄』, 自金陵至帝都, 山川, 風土, 習俗, 無不備記, 吾東方人, 雖不目觀中原, 因此可知, 請并開刊傳播.”]
- 6) 주 3) 참조.

『표해록』이라고 하였다. 바다(황해)를 표류하고, 중국에 표착하여 육로로 이동한 기간 동안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였고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날짜와 날씨를 적고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였다. 卷의 구분은 일정이나 내용에 따른 구분이 아닌, 단순히 일기 형식으로 날짜에 따라 적어가면서 분량에 따라 구분하였다. 권1에는 「漂海錄序」와 丁未年(성종 18년, 1487) 9월 17일부터 戊申年(성종 19년, 1488) 2월 4일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권2에는 3월 25일까지의 기록이 적혀 있고, 권3에는 6월 4일 압록강을 건너 귀국하는 일기를 끝으로 견문기록을 마쳤다. 내용으로 보자면 '제주등삼읍추쇄경차관'으로 발령받음(1487년, 9월 17일), 아버지의 부음을 들음(1488년, 1월 30일), 바다를 표류함(1488년, 윤달 1월 3일부터 윤달 1월 16일까지), 중국 내륙을 이동함(윤달 1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으로 구분하여 표류 14일, 중국 체류기간 136일, 총 150일 간의 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저술하였다. 『표해록』은 이렇게 표류와 견문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문학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여행록, 혹은 중국 견문기에 포함되기도 한다.<sup>7)</sup> 그리고 『표해록』에 관한 연구들도 이러한 분류 기준을 따라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그러나 본 연구는 최부가 『중조견문일기』를 성종에게 올릴 당시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저술하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하였다. 표류를 중점에 두고 저술하였는지, 여행 혹은 견문의 기록에 중점을 두고 저술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이 의도하여 바다를 떠돈 것이 아니었고, 임금의 명을 받들고

7) 조영록,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표해록》, 중국과 일본에 떨친 조선 선비정신의 보고」, 휴머니스트, 2006, p.209.

8) 고병익(「성종조 崔溥의 표류와 《표해록》」, 『이상백박사회갑기념논집』, 을유문화사, 1964)에 의해 국내에서 『표해록』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활발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 왔다. 해양문학의 시각으로 분석한 논문은 최강현(「한국 해양문학 연구」, 『성곡논총』12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81)의 논문이 대표적이고, 중국견문에 집중한 논문으로는 서인석(「崔溥의 《표해록》에 나타난 해외 체험과 체험의 대화적 재구성」, 『고문학과 교육』 제1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니었다. 최부는 아버지의 상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살아 돌아갈 것만을 생각하느라 여행을 다니며 이것저것 둘러볼 마음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또 무사히 돌아온 입장에서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보며 기록할 때는 자신이 겪은 상황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남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에 듣는 이로 하여금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술 방법을 활용하여 전달하곤 한다. 최부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자신이 겪은 기이한 경험을 기록하면서 사실에 의거하여 서술하면서도 최대한 자신의 경험을 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부는 나름대로 문학적 서술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최부가 『표해록』에 사용한 문학적 서술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는지 드러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는 『표해록』의 문학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Ⅱ. 최부 『표해록』의 문체 분류와 특징

본 연구는 최부의 『표해록』이 표류라는 의도치 않았던 경험을 하고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남쪽 지역을 새롭게 접하게 된 경험을 기록한 작품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표해록』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표해록』의 문학적 갈래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문산문은 내용이 광범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각 체제가 서로 뒤얽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가 곤란하지만, 갈래를 알면 작품의 문학적 특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부의 『표해록』 내용은 표류와 견문이고, 일기 형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姚鼐의 한문산문 문체 분류에 의하면 기행문, 견문기, 일기문 등은 잡기류로 분류할 수 있다.<sup>9)</sup> 잡기체 산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 수법에 의하여 묘사하는 문체인 서사체 산문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사대부 계층의 일상 문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문체이다. 姚鼐는 벽에 거는 문장이나 기행문 등 비교적 개인적인 기사의 문장을 잡기라고 보았다.<sup>10)</sup> 한편, 잡기체 가운데 산수자연의 경관을 감상하여 얻은 심미적 체험을 적은 문체가 樓亭記, 山水遊記, 園記이다. 작자의 여행경로를 따라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고, 자연의 경물을 묘사한 산문 작품을 遊記라고 칭한다. 조선전기에 산수유기가 주요한 문체로 자리 잡게 되었고, 김종직<sup>11)</sup>을 대표로 하는 도학파는 산수 속에서 심성을 도야하였으며, 관리 생활을 하면서는 은일의 세계를 동경하여 산수에 노닐거나 산수유기를 음송하며 와유를 즐기게 되었다. 조선전기의 산수유기들은 '記'라는 제목을 단 것도 있으나 '錄'이라는 제목을 단 것도 많은데, '錄'이라는 명칭은 金宗直과 그 문인들의 산행기록에서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sup>12)</sup>

한편 『표해록』을 筆記體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필기는 漫錄, 隨筆, 雜錄, 小說, 稗說, 見聞記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잡기류에 속하였으나, 잡기보다도 문체의 궁리를 하지 않고 작성되며, 대부분 단편으로 전하지 않고 성체되어 전하고, 그 수량도 방대하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문체로 분류하였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나 사실, 발언 등을 자잘하게 기록하고, 여러 글들을 조

9) 청의 고문가인 姚鼐는 『古文辭類纂』에서 산문을 논변, 서발, 주의, 서설, 증서, 조령, 전장, 비지, 잡기, 잠명, 찬송, 사부, 애제 등 13류로 나누었고, 雜記類는 記, 後記, 志, 錄述, 敘事가 해당된다고 하였다.(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사, 1998, pp.131-132)

10) 심경호, 위의 책, pp.216-220.

11) 최부는 김종직의 문인으로 1498년 7월, 戊午史禍가 일어나자 『估畢齋集』을 소장하였다는 죄목으로 고문을 받고 端川에 杖流되었고, 1504년 甲子士禍 때에 참형되었다. (柳希春, 『錦南集』, 「錦南先生集事實」참고.)

12) 예를 들면 金宗直의 「頭流紀行錄」, 李陸의 「智異山錄」, 蔡壽의 「遊松都錄」, 俞好仁의 「遊松都錄」, 南孝溫의 「遊金剛山錄」, 金湖孺의 「續頭流錄」, 李胄의 「金骨山錄」 등이 있다.(심경호, 앞의 책, p.220.)

합하여 책을 이룬다는 특징을 지니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엽 이후로 많은 필기류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魚叔權이 『稗官雜記』에 우리나라의 필기류를 기록하면서 최부의 『표해록』을 언급한 것이 보인다.

동국에는 小說이 적다. 오직 高麗의 大諫 李仁老의 『破閑集』, 拙翁 崔滋의 『補閑集』, 益齋 李齊賢의 『樸翁稗說』이 있다. 本朝에는 仁齋 姜希顔의 『養花小錄』, 四佳 徐居正의 『太平閑話』, 『筆苑雜記』, 『東人詩話』, 晉山 姜希孟의 『村談解頤』, 東峯 金時習의 『金鰲新話』, 李陸의 『靑坡劇談』, 虛白堂 成俔의 『慵齋叢話』, 秋江 南孝溫의 『六臣傳』, 『秋江冷語』, 梅溪 曹偉의 『梅溪叢話』, 校理 崔溥의 『漂海記』, 海平 鄭眉壽의 『閑中啓齒』, 沖庵 金淨의 『濟州風土記』, 適庵 曹伸의 『謏聞鎖錄』이 세상에 전한다.<sup>13)</sup>

위 인용문에서 어숙권이 말한 '소설'이라는 것은 뒤에 나열한 작품들을 보면 곧 '소설=필기'임을 알 수 있다.<sup>14)</sup> 어숙권은 최부의 『표해록』을 수필, 잡록, 견문기라는 입장에서 보아 '필기'로 분류한 것이다.<sup>15)</sup>

13) 魚叔權, 『稗官雜記』卷4, [東國少小說 唯高麗李大諫仁老 『破閑集』, 崔拙翁滋 『補閑集』, 李益齋齊賢 『樸翁稗說』, 本朝姜仁齋希顔 『養花小錄』, 徐四佳居正 『太平閑話』, 『筆苑雜記』, 『東人詩話』, 姜晉山希孟 『村談解頤』, 金東峯時習 『金鰲新話』, 李陸 『靑坡劇談』, 成虛白堂俔 『慵齋叢話』, 南秋江孝溫 『六臣傳』, 『秋江冷語』, 曹梅溪偉 『梅溪叢話』, 崔校理溥 『漂海記』, 鄭海平眉壽 『閑中啓齒』, 金沖庵淨 『濟州風土記』, 曹適庵伸 『謏聞鎖錄』, 行于世.]

14) 이래중(『선초 필기의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p.33-34 참조)은 '필기'라는 용어가 과거 중국에서 '小說'을 지칭하던 여러 명칭 가운데 하나이며, 오늘날에는 일종의 문학의 갈래를 의미 한다고 하였다. 즉 筆記는 雜記한 기록들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소설'과 같은 명칭이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소설'은 근현대적 개념의 소설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설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동양 기록에 나타난 것은 『莊子』「外物篇」과 『荀子』「正名篇」, 『漢書』「藝文志」 등에 서였다. 이들 기록을 보면, 소설이라는 말은 본래 大道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소한 언론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소설을 경시하던 당대의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 또 稗官들에 의하여 채집되어 제왕이나 통치자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으로, 시정이나 길거리에서 얻어들은 말이나 이야기인 街談巷語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15) 高建惠(『崔溥 《漂海錄》 研究』, 경북대박사논문, 2006, p.154)는 최부 『표해록』의

최부가 살았던 조선전기, 특히 성종조(재위기간 1469년~1494년)는 유교 국가인 조선의 현실과 깊은 연관을 가진 성격의 문풍이 주를 이루었다. 조선전기는 현실세계에 대한 관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 학문의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태도는 공적인 측면에서 많은 史書 및 地理書의 간행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현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은 건문잡기 형식 발전의 한 요인이 되었다.<sup>16)</sup> 이러한 때에 최부는 29세 알성문과에 급제하고서 사헌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문재를 인정받아 문신 서거정 등이 왕명을 받아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엮은 史書인 『동국통감』 수찬에 참여(1485년)하였고, 김종직 등과 함께 『여지승람』을 편찬하는데 참여(1487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최부는 해박한 지식과 넓은 건문, 수려한 문장 실력을 쌓아갔다. 그러던 중에 성종이 사건의 정황이나 始末을 묻고 기록을 남기게 하자 최부는 당시 유행하던 필기류의 형식을 사용하면서 『표해록』을 저술(1488년)하였다. 최부는 『표해록』에 날짜와 사건 별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중간 중간 기록해야 할 객관적인 정보 혹은 사실들은 ○ 표시를 붙이고 따로 정리하였다.

윤 1월 16일(2개), 윤1월 19일, 윤1월 22일, 윤1월 23일, 2월 12일, 2월 17일, 4월 23일(4개, 그중 2개는 ○표 없이 1행 띄움), 5월 28일, 6월 4일(3개)

---

갈래를 정의하면서 어숙권의 인용문을 제시하였다. '소설'의 개념을 『漢書藝文志』의 "說家流, 蓋出於稗官. 街談巷語, 道聽塗說之所造也."로 설명하면서 "造"는 '허구, 위조의 함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小知, 小道에서 나왔지만, 생활의 특별한 점에 근거한 허구성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崔斗燦(1779~1821)의 『乘槎錄』과 비교한 결과 『표해록』에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문학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구로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 충분히 허구로 볼 수 있으며, 소설은 아니지만 소설과 유사하며, 소설적 문학색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 또한 『표해록』이 가진 문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현대의 의미를 가진 '소설'의 특징인 '허구성'을 가졌다고 보다는 이내종의 '소설=필기'의 입장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16)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 연구 : 조선 전기 필기의 장르적 성격 규명을 위하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1, pp.34-36.

『표해록』 원문에 ○ 표시가 되어 있는 15곳의 공통점은 어느 곳에 도착하였거나 한 곳에 오래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배경이나 지역이 바뀌게 되었을 경우이다.

- 윤1월 16일 : 표류 하다가 台州府 臨海縣 牛頭 外洋에 도착한 날
- 윤1월 19일 : 海門衛桃渚所에 도착한 날
- 윤1월 22일 : 도저소에 머문 마지막 날
- 윤1월 23일 : 山場 - 烏頭 - 鑑溪 - 塘頭 - 蒲峯 - 佛寺(仙岩里)
- 2월 12일 : 2월 7일부터 武林驛에 머물고 마지막 날
- 2월 17일 : 閩門 - 接官亭
- 4월 23일 : 3월 29일부터 4월 23일 까지 북경 玉河館<sup>17)</sup>에 머물고 마지막 날.
- 5월 28일 : 5월 24일부터 遼陽在城驛 에 머물고 마지막 날
- 6월 4일 : 湯山站 - 九連城 - 娑娑堡 - 楓浦 - 五夜江 - 鴨綠江 - 難子江 - 義州城  
도착

그 중 2개의 ○표시가 있는 윤1월 16일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표류가 끝난 윤1월 16일(2개의 기록)

○ 신이 이번 걸음에 지나온 창파는 비록 동일한 바다 같았지만, 수질과 그 빛같은 곳에 따라 달랐습니다. 제주도 바다는 빛깔이 질푸르고 성질이 사나워서, 비록 작은 바람이 일어도 물결 위에 물결이 넘쳐흘러, 서로 부딪치고 빙빙 돌며 번득거리고 출렁댐이 이보다 더할 수 없었습니다. 흑산도 서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러했습니다. 4晝夜를 가니 바다 빛깔이 희었고 2주야를 가니 더욱 희었습니다. 또 1주야를 가니 더욱 빛깔이 도로 푸르렀고 또 2주야를 가니 도로 희었다가 또 3주야를 가니 붉으면서 탁하더니 또 1주야를 가니 붉고 검

17) 옥하관은 북경 동남쪽의 승무문을 지나 있는 회동관을 말한다. 회동관은 명나라의 공관으로 중국의 소수민족과 외국 사신들의 접대 및 외국어 번역 및 통역관을 양성하던 곳이다. (최기홍·최철호 역, 『표해록』, 최부 지음, 연암서가, 2016, p.178, 주 208) 참고)

었으며 속은 완전히 탁하였습니다.

신의 배는 바람을 보아 따라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뜬 마름처럼 표류하여 정처가 없었으니, 그 중간에 본 바다 빛깔은 대개 이와 같았습니다. 빛깔이 흰 데서부터 푸른 데로 돌아온 이후로는 바람의 힘은 비록 세지마는, 물결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빛깔이 푸른 데서 흰 데로 돌아온 이후로는 비로소 섬이 있었는데, 섬은 모두 층암 절벽으로서 험뎡그렇고 돌무더기인데 위에는 흙이 없혀 있어 잡초와 향초가 무성하게 푸르렀습니다. 수질이 가라앉고 약하므로 만약 큰바람을 만나지만 앓는다면 놀란 물결의 근심은 드물게 볼 것 같았습니다. 신이 도적을 만나 다시 표류하게 된 바다가 또한 제주 바다와 같이 험악했다라면 어찌 능히 다시 섬의 모래톱을 보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 해마다 정월이 되면 꼭 대단한 추위의 막바지를 만나게 되므로, 매서운 바람이 거세게 불고 큰 물결이 진동하여 부딪치게 되니, 배를 타는 사람들이 꺼리는 바입니다. 2월에 가서야 점차로 바람이 화창함을 얻게 됩니다. 제주도 풍속은 여전히 燃燈節이라 부르면서 바다를 건너지 않고 또 江南의 潮州 사람들 정월에는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다. 4월에 이르러 梅雨(매화 열매가 익을 무렵에 내리는 초여름 장마. 일반적으로 장마를 말하기도 함)가 이미 지나가고 시원한 맑은 바람이 불게 되면 海舶(바다에서 항해하는 큰 배)이 처음 돌아오게 되니, 이를 ‘舶趕風’이라 부릅니다. (생략) 18)

18) 『표해록』 권1, 戊申年(1488, 성종 19) 윤1월 16일, [○臣於此行, 所歷滄波, 雖若一海, 水性水色, 隨處有異. 濟州之海, 色深青, 性暴急, 雖少風, 濤上駕濤, 激復瀾潤, 無甚於此. 至黑山島之西猶然. 行過四晝夜, 海色白, 越二晝夜愈白. 又一晝夜還青, 又二晝夜還白, 又三晝夜, 赤而濁, 又一晝夜, 赤黑中全濁. 臣之行舟, 視風從却, 東西南北, 萍漂無定, 其間所見海色, 大槩如此. 自白而還青以後, 風力雖勁, 濤不甚高, 至還白以後, 始有島巒, 島皆岩壁, 卻礙礪砢, 上戴土, 有雜卉香草, 蕪蔚長青. 水性悠弱, 若不遇大風, 則罕見驚波駭浪之患. 臣於遇賊復漂之海, 亦如濟州之海之險, 則豈能復見得島渚乎? ○大抵每歲正月, 正當隆寒之極, 颶風怒號, 巨濤震激, 乘船者所忌. 至二月漸得風和, 濟州俗猶號爲燃燈節, 禁不渡海, 且江南潮人, 亦不於正月浮海. 至四月梅雨既過, 颯然清風, 海舶初回, 謂之舶趕風.(생략)] (본고의 text는 고전번역원 간행 『금남집』 소재 『표해록』 원본을 저본으로 삼고, 박원호의 『崔溥 표해록 역주』(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서인범·주성지가 공역한 『표해록』(한길사, 2004), 최기홍·최철호가 공역한 『표해록』(연암서가, 2016)등을 참고하였다.)

첫 번째 ○에 기록된 내용은 바다의 물살이나 빙갈, 배의 항로, 섬들의 모습 등이다. 두 번째 ○에는 시기에 따른 바닷가 풍속에 관한 것과, 풍파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등이 기록되었다. 바다를 표류하였던 윤달 1월 16일 이전의 기록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긴장과 이완의 연속으로 문학적 표현이 풍부하지만 이 부분의 기록을 보면 객관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 북경에서 25일간 머물고 떠나기 마지막 날인 4월 23일의 기록에도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록 4개가 덧붙여있다. 북경에 오래 머문 만큼 북경에서 보고 들은 지식은 더욱 많고 다양하며 상세하다. 남경과 북경, 북경의 機內, 북경의 성과 성문, 북경 내의 관청들, 북경의 산과 강, 북경의 풍속, 북경의 성대한 문물과 민간 풍속, 북경의 풍경, 이방인에 관한 관리 등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자신이 견문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유의하여 보아야 할 곳은 모든 일정이 끝난 6월 4일의 일기 뒤에 붙어 있는 3개의 기록이다. 우두외양부터 도저소, 백교역에서 경구역까지, 양자강 건너 광릉역, 수로, 육로, 회동관에서 요동재성, 산해관에서 압록강까지, 지나온 곳들의 모습, 산세, 지리, 건축물, 독, 갑문, 홍의 설계, 풍속과 관습, 가옥, 의복, 인심과 풍속, 생업, 무기, 식성, 종교, 명승지까지 광범위한 주제의 내용을 꼼꼼하면서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따로 '최부의 요약'<sup>19)</sup> 혹은 '견문잡기'<sup>20)</sup>라고 이름 지어 분류할 만큼 특기할 만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표해록』에 ○표시와 함께 적힌 기록들은 조선 전기 잡기류 저서들의

19) 최기홍·최철호(앞의 책)는 ○ 표시가 된 부분을 '최부의 주'라고 표현하였는데, 마지막 6월 4일 기록에 있는 ○ 표시 부분은 '최부의 요약'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따로 장을 나누어 해석하였다. 그러나 6월 4일 뒤에 붙은 내용은 중국 내륙 지역을 지나는 동안의 견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표해록』 전체의 요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 한국고전종합DB에는 『표해록』 권3, 6월 4일 기록 뒤에 있는 부분을 따로 분류하여 「견문잡록」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다.

기록과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어숙권이 『패관잡기』에 필기류 저술들을 나열하며 최부의 『표해록』을 포함시킨 이유도 이러한 점에 유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체 분류로 살펴 본 바, 최부의 『표해록』은 잡기류와 필기류의 갈래에 걸쳐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곧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 수법에 의해 묘사하는 잡기체의 특징과 다양한 방면에 걸친 지식과 내용을 기록하는 필기체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위와 같은 갈래에 의거하여 『표해록』만의 독특한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최부 『표해록』의 문학적 서술방식

최부는 『표해록』에 14일 간의 표류와 136일 간의 중국 내륙을 지나는 여정까지 총 150일 간의 일정을 기록하였다. 날짜로 계산해 보면 바다에서 표류한 기간은 10분의 1 정도이지만 『표해록』의 내용적인 분량은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에서 표류한 기간이 전체 기간에 비해 짧고, 특별한 건문이 없기 때문에 더 길게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부는 바다를 표류하는 과정을 매우 생생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최부가 바다에서의 표류 기간을 생략하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경험한 것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표류라는 특별한 체험에 대하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해록』을 연구 할 때에 표류기간의 기록도 관심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표해록』전체를 범위로 하되 표류 기간 기록에 조금 더 집중하여 문학적 서술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장덕순(앞의 책, p.124)도 일반적인 '표해록'에 대하여 대양에서 뜻밖의 풍랑을 만나 정처도 없이 표류하면서 악전고투한 체험과 이국의 풍속, 제도 등의 건문을 일기체로 쓴 특이한 기행수필이라고 정의하였는데, 현대의 문학 장르에 해당하는 일기와 기행은 한문문체의 잡기류, 수필은 한문문체의 필기류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는 곧 잡기류와 필기류에 걸친 장르라고 볼 수 있다.

## 1. 대화체를 이용한 사실감과 생동감 부여

최부는 『표해록』에 대화체를 많이 사용하여 자신이 겪고 들은 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최부는 상대에게 들은 바를 자신의 말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최부가 현장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같이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그리고 사실감과 생동감을 부여한다. 다음 인용문은 최부가 奔喪하기 위해 제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배를 출항하는 날의 기록이다.

윤 1월 3일. 바다에서 표류했음.

호리다 비오다 하고 동풍이 조금 불었으며, 바다 물빛은 짙은 청색이었다.

大靜縣監 鄭圃瑞와 訓導 盧警은 신이 친상 당한 것을 듣고 달려와서 弔慰하고, 崔角, 朴重幹, 倭學訓導 金繼郁, 軍官 崔仲衆, 鎮撫 金仲理 등 10여 인과 學長 金存麗 · 金得禮와 校生 20여 명과 함께 포구에서 송별했습니다. 김존려와 김득례 등은 신이 떠나는 것을 말리면서 말하기를, “늙은 저들은 섬 지방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수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구름이 끼거나 비가 내려 날씨가 고르지 못하면 반드시 바람이 일어나는 變故가 있으니 배를 타서는 안 됩니다. 또 『家禮』에, ‘처음 親喪을 듣고 길을 떠난다.’는 조목의 註에도, ‘하루에 100리를 가고 밤길은 가지 않으며, 비록 슬프더라도 해로운 곳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밤길을 가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이같은 큰 바다를 건너가면서 조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는 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리기도 하여, 해가 중천에 높이 솟아오를 때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鎮撫 安義가 와서 알리기를, “동풍이 아주 좋으니 떠날 만합니다.” 했습니다. 朴重幹과 崔仲衆도 또한 떠나기를 권하므로, 신은 마침내 작별을 고하고 배를 뒀습니다. 노를 저어 5리쯤 가니 軍人 權山과 許尙理 등이 모두 말하기를, “오늘은 바람 기세가 일어났다가 그치기도 하고, 구름과 흠비가 걷혔다가 개이기도 하니 이같이 바람이 순조롭지 못한 날씨를 만나서 이같이 파도가 험악한 바다를 건넌다면 아마 후회가 있을 듯합니다. 청컨대, 별도로 포로 돌아가서 순풍을 기다렸다가 다시 떠나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安義는 말하기를, “하늘의 기후는 사람이 미리 짐작할 수

없는 것이니, 잠깐 동안에 구름이 걷히고 하늘을 볼 수 있을는지 않니까?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넌 사람으로서 개인의 배는 뒤집혀 침몰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지만, 왕명을 받은 朝臣으로서는 전 旌義縣監 李暹 이외에 배가 표류하여 침몰된 사람이 없었던 것은, 모두 임금의 덕망이 지극히 무거움을 실제로 하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면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것인데, 어찌 길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감으로써 시일을 지체시킬 수 있겠습니까?”하고는, 큰소리로 호령하여 돛을 달고 가도록 했습니다.<sup>22)</sup>

이를 살펴보면 최부는 자신의 의견 혹은 말을 기록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오고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날씨가 좋지 않자 출항을 말리는 사람과, 서둘러 출항을 권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였고, 최부는 자신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출항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그 중 최부가 따르게 된 주장은 ‘이 바다를 건넌 사람으로서 개인의 배는 뒤집혀 침몰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지만, 왕명을 받은 朝臣으로서는 전 旌義縣監 李暹 이외에 배가 표류하여 침몰된 사람이 없었던 것은, 모두 임금의 덕망이 지극히 무거움을 실제로 하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安義의 의견이다. 최부는 표류하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상황 속 여러사람 간의 대화를 자세히 기록하여 마치 독자들도 현장

22) 『표해록』 권1, 戊申年(1488, 성종 19) 윤1월 3일, [漂流海中, 是日乍陰乍雨, 東風微順, 海色深青. 大靄縣監鄭臨瑞, 訓導盧警聞臣遇喪, 馳來弔慰, 與崔角、朴重幹、倭學訓導金繼郁、軍官崔仲衆、鎮撫金仲理等十餘人, 學長金存麗、金得禮, 校生二十餘輩, 俱送別于浦口. 存麗、得禮等止臣行曰: “老僕生長海國, 諳經水路, 漢挈山陰雨不調, 必有風變, 不可乘船. 且『家禮』, ‘始聞親喪遂行註云, ‘日行百里, 不夜行, 雖哀戚猶避害也.’ 夜行尚不可, 況過此大海, 其可不慎乎?” 座中或勸或止, 日高不決, 鎮撫安義來告曰, “東風正好, 可以去矣.” 重幹、仲衆等亦勸所行. 臣遂告別登船. 棹過五里, 軍人權山、許尙理等皆曰: “今日, 風勢若作若輟, 雲霾若卷若舒, 當如此風候不順之日, 行如此波濤險惡之海, 恐有後悔. 請還于別浦待風復行, 未爲晚也.” 安義曰: “天之氣候, 非人預料, 頃刻之間, 安知有披雲觀天之理乎? 抑過此海者, 私船覆沒, 接踵相繼, 惟奉王命朝臣前旌義縣監李暹外, 鮮有漂流覆沒者, 則都是上德至重, 實天所知也. 況謀之衆口, 事未有濟, 豈可登程而復路, 以致耽緩乎?” 叱令張帆而行.]

에서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것같이 느끼게 하였으며, 또한 기록에도 사실감과 생동감을 더하였다.

## 2. 상세한 현실묘사를 통한 상황 강조

최부는 바다를 표류하고 육지를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외부에서 닥쳐오는 위기 상황은 물론이고 함께한 사람들 간의 분위기, 또는 최부의 마음속까지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클로즈업하여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렇게 기록된 장면은 비록 실제적으로는 짧은 순간일지라도 물리적 시간과는 상관 없이 확대되고 강조되어 독자들에게 인상적 이면서도 강렬하게 인식된다. 다음 인용문은 표류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윤달 1월 4일.

이날은 비와 우박이 오고 큰바람이 불었으며, 놀란 물결과 무서운 물결이 하늘을 뒤흔들고 바다를 쳐서 소리를 내니 돛자리로 만든 돛이 모두 부서져 버렸습니다. 배는 두 돛대가 높고 크기 때문에 더욱 기울어지기가 쉽고, 형세는 곧 뒤집혀 가라앉을 것 같으므로, 肖斤寶에게 명령하여 도끼를 가지고 돛대를 찍어 없애게 하고 高以福을 시켜서 거적을 엮어 배의 뒤쪽에 붙여 파도를 막게 했습니다. .... 밤에도 바람과 비는 그치지 않고 큰 물결은 더욱 심하여 船首와 船尾에 부딪쳐 들어왔으나 물이 들어오는 대로 곧 퍼냈습니다. 밤 2更쯤 되어, 놀란 물결이 출렁대면서 위로 넘나들어 거적으로 만든 집도 또한 반쯤 침몰되고 의복과 행장이 모두 물에 젖어서 추위는 뼈를 깎아 내는 듯 하였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으므로, 신은 李楨의 손을 잡고 程保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金重과 孫孝子는 臣의 곁에 있었고, 좌우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게 있으면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곁에서 한 사람이 목을 매어 장차 목숨을 끊으려 하므로, 李楨이 그 목맨 것을 풀어 보니, 바로 莫山이었습니다. 崔巨伊山과 莫金 등이 힘을 다하여 물을 퍼내었으나 물은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다.<sup>23)</sup>

표류 이틀째인 윤달 1월 4일의 기록에는 그야말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번역된 부분으로 보아도 급박한 바다와 배의 상황, 추위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심리상태까지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진다. 원문을 살펴보면 최부는 문장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4글자씩 짧은 호흡으로 끊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축급한 句를 연속으로 배치하여 독자로 하여금 속도감을 주고, 급박하고 어수선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윤달 1월 5일.

이날은 캄캄한 안개가 사방에 짙 끼어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었는데, 저녁때가 되면서 빗발이 삼대와 같았다.

밤이 되자 비가 조금 그쳤으나 성난 파도가 산더미와 같아서, 높게 일 때는 푸른 하늘에 솟는 듯했고, 내려갈 때는 깊은 못에 들어가는 듯하여, 부딪치는 소리가 천지를 찢는 듯하니 모두 물에 빠져 썩어 문드러질 것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莫金과 權冠 등은 눈물을 씻으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형세가 이미 급박해졌으니 다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의복을 갈아입고 죽음이 이르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므로, 신도 그 말과 같이 印章과 馬牌를 품안에 넣고 喪冠과 喪服을 갖추고는 근심스럽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손을 비비고 하늘에 축원하기를, “신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충효와 우애를 마음먹었으며, 마음에는 欺罔함이 없고 몸에는 원수진 일이 없었으며, 손으로 살해함이 없었으니, 하느님이 비록 높고 높지마는 실제로 굽어 살피시는 바입니다. 지금 또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갔다가 먼 곳에서 親喪을 당하여 급히 돌아가는 길인데 신에게 무슨 죄와 과실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신에게 죄가 있으면 신의 몸에만 벌이 미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배를 같이 탄 40여 인은 죄도 없으면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하느님께서서는 어찌 가엾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만약 이 궁지에 빠진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신다면, 바람을 거두고 파도를

- 23) 『표해록』제1권, 무신년(1488, 성종 19) 윤1월 4일, [是日雨雹大風, 驚濤畏浪, 掀天鼓海, 帆席盡破. 舟以二檣高大, 尤易傾撓, 勢將覆壓, 命省斤寶操斧去之, 高以福縛草芑附之舟尾以禦濤. …… 夜風雨不止, 巨濤尤甚, 激入舳艫, 隨入隨取. 量可二更, 驚濤鼓蕩, 襄駕篷屋, 舟半沈, 衣服行李, 盡見沾濡, 凍寒砭骨, 命在瞬息, 臣握李植手, 枕程保膝, 金重、孝子傍臣, 左右狼藉以待死, 傍有一人結項將絕, 李植解其結, 則乃吳山也. 巨伊山、莫金等竭力汲水, 水猶不減.]

그치게 하여, 신으로 하여금 세상에 다시 살아나서 신의 갓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노인이 된 신의 어미를 봉양하게 하십시오. 다행히 또 궁궐의 뜰 아래에 鞠躬하게 한다면 그 후에는 비록 만 번 죽어 살지 못하더라도 신은 실로 마음에 만족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sup>24)</sup>

표류 삼일 째인 윤달 1월 5일의 기록이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하늘에 성난 파도 소리는 천지를 찢을 듯하고, 살기위해 최선을 다하던 막금마저 눈물을 씻으며 죽음을 기다리라고 한다. 이를 동안 거칠어진 바다와 씨름하고, 이제는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니 최부도 하늘에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라며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상세한 현실묘사로 강조한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당시 상황에 몰입하게 만든다.

### 3. 긴장과 해소의 반복을 통한 스토리 전개

최부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손에 땀을 쥐게 만들기도 하고, 숨을 고르게도 하며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잘 살려 사실을 기록하였다. 최부와 일행은 파도를 표류하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해적을 만나 죽음을 마주했다가 살아나기도 하였으며, 왜구로 오인 받아 고초를 겪기도 한다. 어려움 속에서 지혜와 운으로 위기를 모면하면서 이들의 일정이 전개된다. 이와 같이 긴장과 해소가 반복되는 구성은 독자들을 사로

24) 『표해록』 권1, 무신년(1488, 성종 19) 윤1월 5일, [是日昏霧四塞, 咫尺不辨, 向晚兩脚如麻. 至夜雨少止, 怒濤如山, 高若出青天, 下若入深淵, 奔衝擊躍, 聲裂天地, 胥溺臭敗, 決在呼吸之間. 莫金、權松等拭淚謂臣曰: “勢已迫矣, 無復望已. 請替換衣服, 以待大命之至.” 臣如其言, 懷印與馬牌, 具喪冠與服, 惴惴然授手祝天曰: “臣在世, 唯忠孝友愛爲心, 心無欺罔, 身無讎冤, 手無殺害, 天雖高高, 實所鑑臨. 今又奉君命而往, 葬父喪而歸, 臣不知有何罪咎. 倘臣有罪, 罰及臣身可也. 同舟四十餘人, 無罪見溺, 天其敢不矜憐乎? 天若哀此窮人, 返風息濤, 使臣得再生於世, 葬臣新死之父, 養臣垂老之母. 幸又得鞠躬於丹墀之下, 然後雖萬死無生, 臣實甘心.”]

잡는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표류기간 동안의 일기에는 긴장과 해소가 반복되면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윤달 1월 3일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날씨가 좋지 않아 배를 출항하는 것에 대하여 만류하는 사람들과 빨리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고 갈등이 증폭된다.(1차 갈등) 이러한 가운데 최부는 배를 출항시켜 갈등을 해소시켰다.(1차 갈등 해소) 하지만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 뱃사공들은 “누구 잘못으로 이런 날에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단 말이나?”라고 심하게 투덜대고 명령을 듣지 않았다. 게다가 닻이 부러지고 노를 저어도 바람에 떠밀려 흘러가기만 하였다.(2차 갈등)

다음 인용문은 다음날인 4일의 기록이다. 3일에 이어서 바다에서 겪는 고난은 계속된다.

(생략) 신은 생각하기를, ‘배가 아직 완전하므로, 위에서 세차게 쏟아지는 물과 틈에서 새어드는 물을 퍼내지 않는다면 앉아서 배가 침몰되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물을 퍼낸다면 아마 살아날 도리가 있겠다.’고 여겨, 억지로 일어나서 權松을 큰소리로 불러 부식들을 쳐서 불을 얻어 짚자리를 걷어서 불을 때게 하고, 또 肖斤寶·高福·金高面 등을 큰소리로 불러 직접 단속해서 물이 새는 곳을 막도록 하고, 또 옷을 벗어서 權山·김고면·최거이산·金怪山·許尙理 등에게 나누어 주어서 맡은 일을 힘쓰게 하였습니다. 정보·김중·손효자 등도 의복을 나누어 여러 군인들에게 주니 군인들 중에 金仇叱廻·文廻·金都終·韓每山·玄山과 같은 사람은 감격하여 서로 다투어 죽을 힘을 다 내어 물을 퍼내어 거의 없어지니 배가 겨우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배가 또 돌섬으로 들어가서 뒤엎기게 되자 권산은 배를 운전하면서 어디로 항할 바를 모르고, 허상리와 김구질회 등은 상앗대를 잡고 어찌할 수가 없었으나, 다행히 바람에 힘입어 물려 나와서 배가 부서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25)

25) 『표해록』권1, 무신년(1488, 성종 19) 윤1월 4일, [(생략)臣以謂舟尙完固, 則自上激射, 自隙漏入之水, 不汲則坐待沈沒, 汲之則庶有生理, 勉強而起, 叫權松, 攢燧得火, 卷芑席以烘之, 又叫斤寶、高福、高面等, 親檢罅漏處以補塞之, 又解衣分給權山、高面、巨伊山、怪山、尙理等, 以勸勉所事. 程保、金重、孝子等, 亦散衣服, 分諸軍人, 軍人若仇叱廻、文廻、都終、每山、玄山等爭感奮出死力, 刮水殆盡, 舟僅獲全. 不移

다음날(4일)이 되자 무시무시한 파도로 인해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두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최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포자기 상태로 빨리 배가 부서져 죽기를 바라는 사람마저 생겨났다.(3차 갈등) 이때에 최부는 침착하게 배 안의 사람들을 점검하고 자신이 출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하며 뱃사람들을 다독인다. 이에 뱃사람들이 다시 최부를 마음을 가다듬고 최부를 따르겠다고 일어선다. 배 안의 사람들은 죽을힘을 다해 물을 퍼내고 바다에 맞서 겨우 살아남게 된다. (3차 갈등 해소)

배 밖의 바다라는 외부적 고난과 바다와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상태, 그리고 외부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최부와 뱃사람들 간의 불신과 신뢰에 관한 내부적 갈등이 더해지면서 상황 전개에 속도감이 생기고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그리고 내부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외부의 고난을 이겨내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이어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바다에서의 표류 상황에서 뿐 아니라 중국 내륙을 지나는 동안에도 여러 번 반복된다.

다음은 윤1월 12일 영과부 경계에서 도적을 만난 날의 기록이다.

(중략) 도적의 괴수가 또 신이 가졌던 印信과 馬牌를 빼앗아 그의 소매 속에 넣으므로, 정보가 그 뒤를 따라가서 돌려 주기를 청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신은 말하기를, “배 안에 있는 물건은 죄다 가져가도 되지마는, 인신과 마패는 곧 나라의 信標라, 사사로이 쓸 곳이 없으니, 나에게 돌려 주는 것이 좋겠다.” 하니, 도적의 괴수는 인신과 마패를 돌려 주고 배의 창문을 나서자마자, 그 무리들과 뱃전에 죽 늘어서서 한참 동안 떠돌고 있다가 배 안으로 도로 들어와서 정보의 웃옷과 바지를 벗기고 매질을 하였으며, 그 다음 작도로 신의 옷매듭을 끊고 옷을 벗겨서 알몸을 만든 뒤, 손을 뒤로 젖히고 다리를 굽혀 결박하더니, 몽둥이를 가지고 신의 왼팔을 매질하여 7, 8번 때리고 난 뒤에 말하기를, “네가 만약 생명을 아낀다면 얼른 금은을 내놓아라.” 하므로, 신은 큰소리

時，舟又入石嶼錯亂中，權山運船不知所向，尙理、仇叱迴等執篙無所施，幸賴天風驅出，得免碎破.]

로 부르짖기를, “몸뚱이가 문드러지고 뼈가 가루로 될지라도 어느 곳에서 금은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도적은 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신의 결박을 풀고 의견을 쓰도록 허용했습니다. 신이 즉시 의견을 썼더니, 도적의 괴수는 노하여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리고는 정보를 가리키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신을 가리키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나서 곧 신의 머리털을 끌어당겨 도로 묶어서 거꾸로 매달고는 작도를 메고 신의 목을 베려고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작도가 마침 오른쪽 어깨 위에 잘못 내려와서 칼날이 뒤집혀 위에 있게 되니, 도리어 다시 작도를 메고 신의 목을 베려고 하매, 한 도적이 와서 작도를 메고 있는 팔을 잡아 이를 저지시키므로 도적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 크게 부르짖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本性을 잃고 달아나 숨어서 몸 둘 곳이 없는 듯하였는데, 다만 金重·崔巨伊山 등만은 손을 모아 절하고 꿇어앉아서 신의 목숨을 살려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도적의 괴수가 신의 몸뚱이를 짓밟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갈 위협하고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신의 배의 닻·노 등 여러 가지 기구를 끊어서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의 배로 신의 배를 끌어 큰 바다 가운데 놓은 다음 그들은 배를 타고 도망해 버렸는데,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sup>26)</sup>

최부 일행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어느 섬에 이르게 되었다. 섬에서 만난 중국인들이 배를 정박하고 목을 수 있는 곳으로 최부 일행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은 이후에 도적떼로 변신하여 금은을 내놓으라며 이들을 매질하고 위협했다. 특히, 최부를 거꾸로 매달고 작두로 내리치는

26) 『표해록』 권1, 무신년(1488, 성종 19) 윤1월 12일, [(중략) 賊魁又奪臣所齎印信馬牌, 納之懷袖, 程保尾其後請還不得. 臣曰: “船中有物, 可盡取去, 印與馬牌, 乃國之信, 私無可用, 可還我.” 賊魁以印牌還, 纔出篷窓, 與其黨列立船舷, 喧囂良久, 旋入舟中, 先脫程保衣袴, 纏而杖之, 次以斫刀, 截臣衣紐, 赤身剝脫, 背手曲脚以綁之, 以杖杖臣左臂七八下曰: “你若愛生, 便出金銀.” 臣大號曰: “身可爛骨可碎, 何所得金銀乎?” 賊不曉臣言, 解臣縛, 許以寫意. 臣即寫之, 賊魁怒, 曠目張喙, 指程保而叫, 指臣而叫, 卽曳臣頭髮, 還縛倒懸, 荷斫刀指臣頸斷之. 刀適誤下右肩隅, 刃鏃在上, 賊又荷刀將斬臣, 有一賊來把荷刀之臂以沮之, 賊黨齊聲大叫, 莫知所謂. 是時, 舟人惴懼失常, 奔竄無地, 唯金重、巨伊山等攢手拜跪, 冀活臣命. 俄而賊魁蹂躪臣身, 喝嚇舟人, 引其黨而出, 截去臣船釘膽諸緣, 投諸海. 遂以其船導縛臣船, 指放大洋, 然後乘其船遁去, 夜已闌矣.]

장면을 묘사한 부분은 긴장감이 넘치고 손에 땀을 쥐게 한다. 다행히 칼날이 비껴나가 최부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최부 일행이 느낀 절정의 공포감은 문장에서 그대로 전해진다. 그리고 다시 배는 대양에 내버려졌고 어두운 밤이 되었다는 것으로 일기를 마쳤다. 최부는 끝없는 사건과 갈등으로 긴장을 증폭시키고 이것을 해소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안도감 혹은 여운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한다.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독자들을 강하게 작품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부의 『표해록』이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난 문학적 갈래와 특징, 그리고 문학적 서술방식을 살펴보았다. 『표해록』은 견문기이면서 일기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잡기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면에 걸친 지식과 내용을 기록하는 필기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한 최부의 『표해록』은 문학적으로 깊이 있는 표류에 관한 기록과 함께 자세하면서도 방대한 견문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서 독특하고 개성적인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살핀 최부 『표해록』의 3가지 문학적 특징은 1) 대화체를 통한 사실감과 현장감 증가, 2) 상세한 현실묘사를 통한 상황 강조, 3) 긴장과 해소의 반복을 통한 스토리 전개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해록』의 저술은 성종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 『동국통감』과 『여지승람』을 편찬하면서 다져진 최부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 아무나 쉽게 겪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닌 특별하고 진기한 경험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부의 『표해록』은 표류와 견문을 함께 다루어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내었고 조선전기 기행문학과 필기문학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 文獻〉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柳希春, 『錦南集』.
- 魚叔權, 『稗官雜記』.
- 趙慶男, 『歷代要覽』.
- 崔溥, 『錦南集』.
- 崔溥, 『漂海錄』.

김명호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1』, 휴머니스트, 2006.

박원호 저, 『최부 표해록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심경호 저,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장덕순 저, 『한국수필문학사』, 새문사, 1985.

최 부 저, 박원호 역, 『최부 표해록 역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최 부 저,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04.

최 부 저, 최기홍·최철호 옮김, 『표해록』, 연암서가, 2016.

高建惠, 「최부 《표해록》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고병익, 「성조종 최부의 표류와 《표해록》」, 『이상백박사회갑기념논집』, 을유문화사, 1964.

김미선, 「최부 《표해록》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과 사림과 관료의 중국 체험」, 『한국문화연구』 10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에 나타난 해외 체험과 체험의 대화적 재구성」, 『고전문학과 교육』 1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이래중, 「선초필기의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이희순, 「최부 《표해록》의 문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 연구 : 조선전기 필기의 장르적 성격 규명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진주희, 「《표해록》의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최강현, 「한국 해양문학 연구」, 『성곡논총』 12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81.

## Abstract

### *A Study on the Literary Descriptions in Choi-bu's 『Pyohaerok(漂海錄)』*

Hwang Ah-young\*

Choi-bu's 『Pyohaerok(漂海錄)』 is a travel diary that describes the experience of Choi-bu arriving in China after drifting in the sea and returning to Joseon(朝鮮) land via inland China. Choi-bu recorded every 150 day of his experience in the 『Pyohaerok』 in the form of a diary, which provided detailed information on customs, geography and natural environment in areas south of Beijing, which was not known to the Joseon Dynasty at that time. The 『Pyohaerok』 is a part of 'Jobgi(雜記叢書)' that is a form of a record of personal experience and a diary, and is also a part of 'Pilgi(筆記叢書)' that records essays and miscellaneous books. In particular, King Seongjong(成宗) of the Joseon Dynasty promoted practical studies so that it was time when many books of Pilgi were in vogue. Choi-bu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of such practical books, and he had extensive knowledge, so he received a royal command and wrote 『Pyohaerok』 which included a record of his special experience and a record for delivery of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focus more on literary expressions of special experiences rather than on information delivery in the 『Pyohaerok』. Choi-bu had recorded many conversations with people, which enhanced realism in literature and delivered much animated expression by describing the surroundings and the scene in detail. In addition, Choi-bu continuously expressed many stories with being suspenseful, with proper arrangements of the life-and-death crises that he had experienced, and with moments when such problems had been resolved. This method of narrative had greatly influenced the subsequent Joseon Dynasty paragraphs by achieving not only the purpose of information transfer but also literary achievements.

【Key words】 Choi-bu(崔溥), 『Pyohaerok(漂海錄)』, Record of personal experience, Travelogue diary, Narrative expression style, Jobgi(雜記), Pilgi(筆記)

투고일 : 5월 20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

\* Lecturer of Sungshin Univ. / ahyoung20@naver.com

